



봉우 컬럼

보증서지 말라

매일 아침마다 보내는 만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답신을 한다. 그 중 한 사람의 내용이 다. 이를 공개하는 것은 이 글로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목사님을 28년 따랐던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항상 설교 시작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입니다.’라는 것과 ‘여러분 삶 속에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 편에 서고, 모르는 것은 꼭 하나님께 여쭙보세요.’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아주 친한 분이 보증 좀 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좀 해보겠다며 일단 그 자리는 피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통에 몹시 괴로워서 기도하고는 다음날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때 목사님은 잠언 22장 26-27절 말씀,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값을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는 말씀을 읽어주셨고, ‘나는 이제 다 가르쳤으니 이제 알아서 해요. 나는 바빠서 이만! 하하하...’라고 말씀하시고 상담을 마치셨습니다.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나 목사님의 말씀대로 정중히 거절하자 우리 사이는 냉랭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망해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보증 선 사람들 집이 경매처리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그것 봐,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신다니까.’ 하시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저를 위경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렇다. 부모나 형제 일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남의 일엔 절대 보증서지 말라. 성경 말씀만 알려주고 글을 맺는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이웃에게 보증 서느니라”(잠17:18),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잠11:15).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교육국은 새로 태어나야 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교육국 담임목사를 자처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5월 27일 교육국 담임 이초석 목사님의 JC 아카데미에서의 첫 일성(一聲)이었다. 그 후 목사님은 매주 화요일에는 직무실에서 임원교육을, 금요일은 JC 아카데미에서 세미나를, 그리고 토요일에는 중고등부 지도를 강행하셨다. 그 내용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지혜와 지식이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림을 누비고 다닌다. 왕도 가려운 곳은 내가 굶어야 시원한 법, 아는 것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 의상, 헤어스타일, 표정관리, 언어 관리를 하라. 그것이 바로 너다. 또한 웃음은 최고의 스펙이다.

❖ 지도자가 꿈은 뿌리라면 그 옆에 브레인들이나 협력자들은 잔뿌리다. 그런 자를 얻기 위해서는 감동을 시켜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

❖ 살아남으려면 적응하라. 피할 수 없다면 즐기며 적응하라.

는 것이 없으면 할 일도 없다. 이것이 내 나이 70을 바라보며, 또한 목회 31년에 깨달은 진리 중의 진리이다. 지금 공부해라. 지금 노력하고 연구해라. 그것이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남보다 앞서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배워서 남 주나?’라는 말이 있는데, 배워서 남을 줘야 한다.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우리가 성공해야 할 이유, 우리가 꼭짓점 인생이 되어야 할 이유,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 높이는 것에 있다. 내가 궁색



용장 밑에 약졸은 없다. 호랑이 새끼도 호랑이다.

❖ 아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노력하고 배워라.

❖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중요하다. 고양이라도 호랑이에게 배우면 호랑이처럼 사냥하고 담대해진다. 너희는 예수님께 배웠으니 그분의 지혜와 성품을 닦아라.

❖ 지도자의 덕목 중 으뜸은 여유다. 여유란 남을 나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 책임감은 관심의 자녀고, 무책임은 무관심의 자녀다. 매사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라.

❖ 속도 삼발에서 자라면 그 즐거가 곧다. 사람도 환경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13:20)는 말씀을 깨달아라.

❖ 적보다 무서운 것은 무능한 지휘관이다. 밀림의 왕인 호랑이도 밀림의 세계를 가르치기 위해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밀

❖ 행복의 커트라인이 너를 불행하게 만든다. 행복의 커트라인을 없애라.

❖ 대중이란 기생충을 잡아라. 차선이 아니라 매사 최선을 다하라.

❖ 성공의 비결은 ‘부지런+노력’이다.

❖ 만물을 상품으로 보는 안목을 가져라. 만물에 너의 아이디어를 붙여넣으면 그것은 상품이 된다.

❖ 정보는 성공의 키요, 성공으로의 날개요 징검다리다.”

8일은 JC 아카데미 전반기의 종강 일이었다. 이날 목사님은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는 말씀을 전하셨다.

“우리는 7주 동안 함께 했다. 한 학기를 마치면서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다. 첫 시간에도 말했듯이 ‘아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아는 것만큼 자유의 폭과 깊이가 커진다. ‘아는 것이 힘’이란 옛말을 늘 기억하라. 아

하게 살면서, 내가 무지하게 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겠는가. ‘산 위의 동네가 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자. 이것이 한 학기를 마치며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7주 동안 배운 것을 꼭 행동으로 옮겨 너희의 것이 되게 하라.

짧은 짧은 시간과 정비례한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닮기를 원한다. 용장 밑에 약졸은 없는 법 아니겠는가. 나는 너희를 믿는다. 그리고 사랑한다.”

목사님의 명설교, 명강의는 ‘청소년 연합수련회’에서 계속된다. 7월 25일에서 30일까지, 장성 예수중심기도원에서 만나자.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기도원 하계산상집회

8월 첫째 주 ~ 셋째 주 (8월 1일 월요일 ~ 8월 18일 목요일 저녁)
호텔예약 7월 25(월-첫째 주), 26(화-둘째 주), 27(수-셋째 주)
인터넷 예약(www.jcc.tv), 10시 정각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10:32~33)



만사형통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초석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나는 백문백답, 천문천답, 만 번을 물어도 답이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나의 건강이 어디서 왔는가? 예수에게서 왔고, 지혜가 누구로 말미암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며, 나의 능력 역시 예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와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며, 오늘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높이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것은 2007년 세계 목회자 세미나 마지막 날의 설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자랑하려고 예수님의 행복한 노예로 세계를 메주 밟듯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남편이 승진했다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이번에 큰 집으로 이사했다고, 취직했다고 이집 저집, 이 사람 저 사람에게는 자랑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자랑해봤습니까? 남편을 승진시켜주신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하신 하나님, 좋은 집을 살 수 있도록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취직하기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울 때 취직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봤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만이 가득하십니다. 불만(不滿)이란 아닐 불(不), 가득할 만(滿)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흠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해 ‘내가 아비일찢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찢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말1:6)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내가 축복을 주고, 병을 고쳐주었고, 취직을 하게하고, 결혼도, 문제해결도 해주었는데 도대체 자랑을 하지 않는구나.’ 하고 통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여러분,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마10:32~33)는 말씀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면 나도 너를 자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난리입니다. 혹여 대통령과 악수만 해도 손을 안 씻는다고 난리치며 자랑할 것입니다. 하긴 목사들의 명함에도 무슨 박사요, 이사장이요, 무슨 회장이요... 하며 세상 배경을 자랑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무슨 복을 빌겠습니까? 자랑하면 악한 것이 틈탄다고요? 자랑하면 교만해진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데 어찌 귀신이 틈타고 교만해지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본시 자랑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렘9:23)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총회장 이초석 목사

유명한 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찌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줄 깨닫는 것이라”(렘9:23~24)고 말씀하십니다.

‘자랑 끝에 불붙는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히스기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죽을병에서 살아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생명을 연장 받은 남 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 소식을 들은 주변 국가들은 축하사절단을 보냈고, 바벨론도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신이 나서 그들에게 이것저것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궁중에 있는 보화와 향료 등을 자랑하는데 열을 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적국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될 무기고에 내탕고까지 보여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

로 옮긴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렘23:1~2),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시20:7)라고 한 것처럼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8:17~18)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대상29:11). 그러므로 내 지식, 내 능력, 내 부와 명예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 이 생 각 하 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고후3:5).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나 나도 자랑하겠노라”(고후11:18)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멸하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갈6:14)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해야 합니다. 한나가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삼상2:8)라고 자랑한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

며 설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시23:1~2),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시20:7)라고 한 것처럼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잠8:17~18)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랑 끝에 불붙는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라고 해야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더욱 영화롭게 하시고, 더욱 풍요롭게 하시며, 더욱 행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병이 나았어도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붙여주셨다. 의사 손길을 통해 고쳐주셨다.” 자랑해야지요. 권력자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그 권력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걱정을 알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먼저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느2:4)?

파라과이에서 이현숙 선교사를 취재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 측에서 하나님이란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랑하러 나갑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밥을 먹든, 일을 하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기록된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고전1:31). 사람을 자랑하지 마세요(고전3:21).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여 하나님의 불만을 풀어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과 천사 앞에서 자랑하실 것이고,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기회는 잡는 사람이 임자, 그러나...

금식기도의 힘

마태복음 25장 1~13절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다. 들림을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두 가지 더 깨닫고 가야 할 교훈이 있다.

첫째는 철저히 준비한 자와 적당히 준비한 자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100-1=0, 100+1=∞ 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이곳을 이것보다 훨씬 더하다. 철저히 준비한 자는 들림 받았고, 적당히 준비한 자는 버림받았다.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들림이나 천국이나 상급이나, 세상 일을 적당히 준비하여 ‘이쯤이면 되겠지’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 말고, ‘이것이라야만 돼’라는 생각으로 준비하라는 것이다.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 목적이나 원하는 삶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준비를 안해서가 아니고, 적당히 준비하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삶이나 목표는 철저히 준비한 사람들이 모두 차지하고 적당히 준비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접한 것들을 나누어 가지려고 아우성이다. 일류대학, 좋은 직업, 좋은 지위는 적당히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기회는 잡는 자가 임자지만, 적당히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잡혀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철저히 준비한 자들이 먼저 잡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슬기

로운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자기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힘써서 준비한 것(기름)들을 합부로 나눠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창세기 41, 47장에도 요셉이 흉년을 대비하여 힘써서 바다의 모래알 같은 곡물을 넘치게 준비해놔고, 흉년이 왔을 때 그냥 마구 나눠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가에 판매하여 온 애굽의 돈, 짐승, 토지, 심지어 목숨까지 받고 곡물을 나눠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결국은 짐승도 살리고, 백성도 살리고, 다시 다 나눠주어 20%의 토지세법으로 나라도 튼튼하게 세우는 일을 이룬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나 요셉은 인정에 치우치거나,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유혹되어 애써서 준비한 것들을 합부로 소비하지 않고, 철저히 관리하여 목적을 이루었다. 이들은 독한 사람들이 아니다. 나쁜 사람들도 아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칭찬하셨다. 공들여 쌓은 탑도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 애쓰고 힘들여 쌓아놓은 공든 탑을 대충 관리하여 무너뜨리면 그동안 수고가 너무 허무하다. 애써 일궈놓은 교회, 기업, 가정, 나아가 우리의 신뢰나 인생을 잠깐의 기분이나 안일함 때문에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주님도 피 흘려 이루신 구원이나 들림, 상급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으신다. 애써서 이뤄놓은 것들을 잘 관리하여 지켜나갈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이시대 목사

기도가 없이 주의 일은 한결음도 진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기에 주님께 대한 목마름은 한도 없고 끝도 없어야 한다. 주의 일에 대한 부족함은 목회자라면 어느 누구나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앞드릴 때마다 ‘할 수 없다’는 고백과 눈물로 주님을 감동시킬 뿐이다. 만약 주의 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무릎 꿇는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때부터는 사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주여 이 죄인이’란 찬양은 고백적 의지의 표현이고 절규다. 주님에 대한 목마름은 호흡이 정지될 때까지 간직해야 한다. 소멸되는 그 순간부터 사망의 길을 향해 가는 것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목마름을 상실했던 엘리 제사장을 주께서 과감히 버리시고, 순전했던 어린 사무엘을 택하여 부르셨는데, 버림받은 엘리 제사장의 반면거울을 통해 그 뜻을 알

았던 사무엘은 죽는 순간까지 기도로 의지했다(삼상12:23).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무엘을 보시고 그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지켜 주셨다(삼상7:13). 오직 한사람 사무엘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신 것이다.

오직 한사람, 오직 그 한사람. 그 한사람 같은 자에게 미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금식기도로 그 한사람이 되고자 주님께 집중한다. 또한 열망한다. 내일을 향해 팽창해 나가는 주의 나라, 의의 합당한 도구로 더욱 쓰이기를 간절히 원하며...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기도가 끝난 자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목사님의 외침이 귓가에 맴돈다. 이구원 목사



:: 간중 ::

늦깎이 전도사의 신앙고백



23년 전, 39세 육군대대장 시절에 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난 형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형은 생활인으로서도, 신앙인으로서도 자질과 품성이 누구와 비길 바 없는 사람이었다. 형에 의해 전도된 사람만 해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이는 그 타고난 품성에 사랑과 진실의 향기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릴 적 방배동에서 율타리를 사이에 두고 이웃이었던 이초석 목사님은 내 형과 나를 잘 알고 계셨다. 우리가 학생 시절, 목사님은 신앙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는데, 어느 때 목사님이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 송의동 성전을 방문하여 설교를 들으니 힘 있고 강한 메시지에 매료되어 당시 한국에루살렘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이시대 목사님과 형은 이웃집에 살며 같은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형수와 사모님은 절친한 고등학교 동창 짝인지

라 부부끼리도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 그러나 형이 떠난 후 나는 심한 충격 속에서 신앙을 등지고 긴 영적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 이런 방황의 시절에도 회사의 운영은 어려움이 없어 물질적으로 아쉬움 없이 흐트러진 삶, 의미 없는 이생을 위하여 흥청망청 살았다.

20여년이 흐른 후, 하나님의 강하신 개입으로 감리교단의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 그 분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였고, 진정으로 예배시간이 기다려지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재개하였다. 기쁨도 잠시. 교회 등록 이후 거짓말처럼 회사에 시련이 닥치기 시작하였다. 그야말로 100% 확신하였던 사업 수주도 실패로 돌아가고, 탄탄하던 영업망도 무너지기 시작하여 일면식도 없던 사채업자의 농간으로 소송이 벌어지지 않나, 영업상 접대 중 고위층 인사가 죽어나가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계속되었다. 분명 시험이었다. 설상가상 회사를 총괄하던 영업사장이 이직하게 되어 진퇴양난의 양상이 계속되었다. 매일 새벽기도는 눈물로 지새고, 예배시간에는 우느라 찬송 한번 따라 부르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었다. 참으로 하늘이 무너져가고 있었다. 매일 매일 눈물로 부르짖었으나 그렇

게 가까이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실 줄 알았던 주께서 응답이 없으셨다.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채 채권자들의 성화와 소송, 직원들의 급여와 밀린 세금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술로 이겨나가는 하루하루에 심신은 피폐해지고 말았다. 계속되는 간구에도 주께서는 물질적 응답을 미루시고 점점 가중되는 어려움들을 기적적으로 견뎌내도록 하시며 수많은 응답과 환상,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셨다.

2011년 12월 16일, 20년 동안 안부조차 없었던 이초석 목사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구부리고 앉은 나를 온 몸으로 덮으시고 안수하시며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정되었음을 설명하셨다. 꿈이 잊히지 않아 KBS88체육관에서 목사님 만나 뵙고 상담하니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심은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과 함께 ‘너는 목사하면 잘할 것’이라는 덕담을 건네시고 신학교에 편입할 것을 지시하셨다. 목사님 상담 후 열떨결에 신학교에 지원하였다. 신기하게도 회사가 급작스럽게 정리되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모든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어갔다. 그리고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며 24시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은혜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수 없는 체험, 꿈과 환상들,

말씀들을 듣고 보며 작은 깨달음들 속에 빠져드는 생활이었다. 그 중 가장 은혜로운 주의 음성은 “내가 너를 지배하리라.”는 말씀이었다. 너무나 고대하던 응답이라 주께 외쳤다.

“아멘,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밖의 상황이 변하길 구하지 말고 너부터 변화하라.”

“아, 주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디 상황을 고치지 말고 저를 고쳐주소서. 당신은 절망과 고통의 땅에서 저를 이곳 예수중심교단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이 주께서 예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환골탈태의 학습장임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문득 돌이켜 보면 어느새 훌쩍 자란 봄비 후 죽순 같은 나를 발견하게 됨을...”

이초석 목사님께서 권면하셨던 목자의 길, 그 미루었던 길을 20년 훌쩍 넘게 지내고 그 권면이 이루어짐을 생각하면 목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깜짝 놀란다. 이제 종로교구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지 5개월!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 평강 속에서 주께서 명하신 주의 길을 걷고 있다.

종로교구 이광주 전도사

책임지지 못할 일은 하지 말라



7월 11일 월요일부터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예수중심기도원에서는 전국 청소년연합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한 워크숍(Workshop)이 진행되었다. 대학청년부원들은 자 원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대거 참여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 워크숍은 교육국 담임목사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총회장 목사님이 함께 하시면서 더욱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월요일에 기도원에 도착하신 목사님은 기도원 곳곳을 직접 돌아다니시며 점검에 점검을 거듭하셨다. “내가 이곳에 왜 내려왔는지 아는가? 너희들의 담당목사라는 책임감 때문이다. 나는 게으름의 정의는 무책임이라고 너희들에게 계속 교육해왔다. 청소년들을 담당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 자원해서 왔다. 그런데 만약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너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자! 이제 시작해 보자. 주인의식을 갖고, 두 번 할 일 하지 말자.” 기도원에 모인 교역자들과 청년들은 목사님의 격려에 힘입어 수련회가 열리는 기도원의 대성전을 비롯한 호텔, 숙소 등 기도원 전체를 누비며 아름다운 땀방울을 흘렸다. 수련생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책상과 의자 하나하나를 깨끗이 닦아내고 질서정연하게 배치하는 것까지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움직였다. 매년 여름마다 진행되는 수련회 워크숍

하겠 다고 말한 내가 청 소 년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은 책임자로서 마땅한 일이다. 너희는 수

이지만, 올해는 특히 기도원에 계신 직원분들이 미리 많은 일들을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처리해주신 덕분에 여유를 가지고 일할 수 있었다. 목사님은 오전 봉사를 마치고 식사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에게 영혼을 살피우는 지혜의 말씀을 먼저 먹여주셨다. “나는 노루를 쫓는 놈이 지나가는 토끼 따위에 관심을 보이는 놈과는 일 안한다. 너희는 차출이 아니라 자원했으니 너희를 믿는다. 일 다 마치고 먹고 놀자. 내가 일할 때 밥 타령, 휴식 타령하는 사람과 같이 한다면 그 일이 어찌 제대로 진행되었는가? 초일류기업, 대기업은 모두 성과중심이다. 또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조급’과 ‘빨리’는 다르다. ‘조급’은 지식도 없으면서 마음만 급한 것이라면, ‘빨리’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능수능란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조급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일하고, 또한 협력의 구도로 일하기를 원한다.” 목사님께서 교육부서를 담당하신 이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많은 잠언(箴言)들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실천에 옮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운명과 미래는

분명 달라질 것이다. 목사님의 가르침은 듣기는 쉬워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도 계속 반복해서 교육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마치 자식이 더 잘 되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고,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호랑이 새끼도 호랑이다. 용장 밑에 악졸은 없다. 너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유능한 역군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너희의 오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철저히 준비한 자만이 성공의 면류관을 쓴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시며 목사님은 봉사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셨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은혜가 넘치는 이번 청소년연합수련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풍성한 영혼의 열매가 맺히는 천국 잔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 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전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기자 신혁주

blessedmic@naver.com

Good News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할머니 한분이 세례문답식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집안의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머님,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시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답하세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예상했던 질문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며느리 년 죄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파안대소하셨다고 합니다.

바로크 시대의 화가 네덜란드의 렘브란트가 그린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라는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중에 자신의 자화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런 죄와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상화평 목사**

주일은사예배

주일 오후 3시 강서구 화곡동 KBS88체육관

☞ 우리 인생은 습관이란 놈이

:: Global Study ::

성공도 실패도 시키는 키(key)를 쥐고 있다.

The key to success or failure in our life is called habits.

我们的人生当中习惯拿着成功和失败的钥匙

☞ 습관이 생각보다 빠르다.

Habits are quicker than your thoughts.

习惯比想法更快

음란과 사랑의 차이

왜 음란한가? 인간성이 저급하기 때문이다. 음란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사랑은 우리가 고상할 때만 가능하다. 음란은 내가 중심이고 사랑은 상대가 중심이다. 음란은 상대와 그의 주변을 파괴시키는 폭력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사랑에는 그와 그가 속한 세계를 견고히 해주는 관심과 따뜻함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음란은 내 욕심과 쾌락, 욕정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를 위해 내 것을 주는 것이다. 음란한 또 다른 이유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다. 성적인 수단 외에는 상대에게 나를 특별한 존재로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를 사로잡기 위한 마음이 간절하여 그것이 얼마나 천박한지도 모르고 음란한 눈짓과 몸짓을 보낸다. 뿐만 아니다. 자본주의하에

서 가장 성적인 매력이 있는 것은 돈이다. 노골적으로 돈을 보여주고, 돈을 주면서 유혹한다. 음란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마라. 사랑은 성적인 것으로 그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사랑도 그에게 인정받고 싶고 특별한 존재이고 싶지만, 수단은 진실된 마음과 세심한 관심이다. 음란의 폭력성을 알고 있기에 극도로 경계하고 싫어한다. 음란에 대한 분명한 테두리와 기준을 정해놓고 최대한 멀리 떨어진다. 한층 나아가, 더 고상한 사랑은 사랑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가 알아주지 않아도 크게 실망하거나 섭섭해하지 않는다. 또한 상대와 그의 세계를 존중하고 더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기에, 내가 그와 그의 세계에 속하지 않

아도 크게 아파하지 않는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염려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사랑과 음란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중심이냐는 것이다. 상대가 중심이면 사랑이고, 내가 중심이면 음란이다. 나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그를 조정하려 든다면, 음란인 것이다. 음란한 사람에게 상대는 소모품이다. 상대의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아무데나 버려버린다. 성이란 인간 마음과 관계 속에서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그 영향력도 가꿀 만한, 거대한 것이다. 따라서 성에 대해 더 깊은 고찰이 절실하며, 그 고찰을 토대로 꾸준한 가르침이 있어야 절벽 위에 선 우리 세대가 돌아설 수 있다. 죽을 길에서 살 길로... **박소향**

